금주의 법구–〈잡보장경〉
태산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춰라.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5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6월 19일) 2021년 7월 28일 수요일



7월 22일 전북 김제 금산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태공당 월주 대종사 영전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불교 발전 주역, 태공당 월주 대종사 원적

7월 22일 금산사서 입적…다비 · 영결식 7월 26일 엄수

조계종 17 · 28대 총무원장 활동
종단 행정 · 제도 · 교육체계 확립
10.27법난 피해자…자주성 강화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제17대 · 28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원로의원 태공당 월주 대종사가 7월 22일 오전 9시 45분 전북 김제 금산사 만월당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납 67년 세수 87세. 대종사의 빈소는 금산사 처영기념관에 마련됐으며 영결식 및 다비식은 7월 26일 오전 10시 종단장으로 엄수됐다.

금산사 분향소에는 불교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끝없이 이어지며 월주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3일 분향소를 찾아 대종사의 영전에 삼배의 예를 올린 뒤 "큰스님의 원적에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반드시 극락왕생하셨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추모의 뜻을 표했다. 이어 "큰스님을 여러번 뵙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며 "산중수행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늘 중생들의 고통해 함께했던 큰스님의 보살행과 자비행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월주 대종사는 한국불교현대사의 산 증인이다. 격동의 시기 조계종 수장으로 한국불교 발전의 토대를 일궜고 깨달음의 사회화를 주창하며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실천적인 롤모델을 제시하는 등 불교의 대사회적 저변을 확장시킨 입지전적인 인물로 손꼽힌다.

특히 조계종 정화 불사와 통합종단 출범, 종단 개혁 등 격동하던 시대적 흐름을 이끈 장본인으로 평가된다.

1980년 조계종 제1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월주 대종사는 불교 자주화와 종단 운영의 자율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그해 신군부에 의한 10.27법난으로 종단이 붕괴되면서 총무원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불교계가 군홧발에 유린당하는 모습을 목도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월주 대종사는 다시 제28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대중선거를 통해 선출된 첫 총무원장이었다.

14년만에 다시 총무원장에 취임한 월주 대종사는 '개혁종단'의 수장으로, 무엇보다 종단을 둘러싼 안팎의 문제들을 타파하는데 공력을 기울였다. 종단 개혁의 완성은 물론,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됐다. 종단과 정권간 부당한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쓴 것은 물론, 종단 운영체계를 다지고 승가교육의 기본틀을 정비했으며, 제도 개혁을 토대로 한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같은 성과들은 종단 발전의 기틀이자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다.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 확대에도 한 획을 그었다. 월주 대종사는 '깨달음의 사회화'를 주창한데 이어, 그 실질적인 결실로 국제개발협력단체 지구촌공생회를 창립해 제3국가를 지원했고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집 설립과 운영을 이끌었다.

월주 대종사는 금산사를 중창한 주역이기도 하다. 금산사는 신라시대 창건된 유서깊은 사찰이었지만,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며 사격이 기울었다. 1961년 금산사 주지로 임명된 월주 스님은 도량 재건에 나섰다.

신도 뿐 아니라 불자들과 국민의 정성을 모아내 수채의 전각을 신축하고 미륵전과 대적광전 등 전각을 해체복원했으며, 벽화 수장고와 템플스테이센터, 한국전통사찰 음식체험관, 처영문화기념관 등 문화확산을 위한 건물도 추가로 건립했다. 현재 금산사는 명실상부 지역을 대표하는 명찰로 우뚝 섰다.

월주 대종사는 1935년 전북 정읍에서 출생했다. 1951년 법주사에서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고 1956년 화엄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1년~1974년까지 금산사 주지를 맡아 불사를 일궜으며, 전북 종무원장과 재단법인 불교전북교원 이사장, 금산상업중 · 고등학교 이사장, 대승학원 이사장,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조계종 제2~7대 중앙종회의원, 5대 중앙종회의장, 총무원 총무부장에 이어 제17 · 28대 총무원장 소임을 맡았으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 조계종 원로의원에 선출됐으며 2018년 조계종 대종사 법계를 품서했다.

한편 월주 대종사를 기리는 지역분향소는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보문사, 도선사, 영화사, 진관사,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 마련됐다.

섹션 추모특집 B1~8면

조계종 ㈜도반HC 자회사 합병·개편

합병 8월 1일 잠정 확정… 미디어 · 유통 통합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가 자회사 합병을 통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이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조직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토대로 수익구조 확장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도반HC는 지난 6월 이사회를 개최해 도반HC 산하 자회사 일부에 대한 인수합병의 건을 의결했다. 이어 6월 21일 주주총회를 거쳐 합병공고를 비롯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반HC는 ㈜도반유통과 ㈜도반미디어, ㈜도반기획, ㈜조계종출판사 4개 산하법인과 이를 관리하는 기획경영실로 구성돼 있다. 합병 대상은 이 가운데 도반유통과 도반미디어로, 법인해산 절차를 거쳐 도반HC로 통합된다. 이후 도반HC는 달력사업부, 승소사업부, 디자인사업부, 영업부 4개 부서 체제로 개편되며, 기존의 기획경영실은 기획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해 총괄관리를 담당할 전망이다.

조계종 출판사와 도반기획은 주주 관계 및 운영 특성을 감안해 현재의 독립경영 법인으로 유지된다. 합병기일은 8월 1일로 잠정확정됐다.

기존 도반미디어와 도반유통이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상호 협조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안이 적지 않은 만큼, 합병을 통한 4부 체제로의 변화는 부서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반HC측은 이번 합병을 계기로 영업과 홍보, 기획, 회계 등 기존 자회사 별로 분산됐던 주요업무와 담당 인력의 통합 및 재배치 등 대대적인 조직구조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운영을 체계화해, 보다 합리적인 경영체계로의 체질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도반HC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도반HC를 구성하는 각 자회사들이 독립경영 체제의 법인이긴 하지만, 전문적인 경영이라기보다는 그때 그때 주어진 상황에 의해 운영된 측면이 있었다"며 "현재 도반HC가 갖추고 있는 각 분야의 역량과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할 필요성이 합병을 추진하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윤창묵 도반HC 상무도 "코로나19 이후 도반HC 경영에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직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번 합병으로 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의 단일화를 꾀했고 각 부서별 전문영역을 구축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도반HC는 올 초부터 조직개편을 염두에 둔 다각도의 노력을 개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 중 전문업체의 경영컨설팅을 통해 도반HC 산하법인

전문분야별 4부서 체제로
합리적인 경영 구축 목적
조계종출판사 · 기획 제외

들의 세무, 회계 등 재정구조와 업무, 인사에 대한 총제적인 조사 · 분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도 이뤄졌다.

그 결과 효과적인 경영 대안으로 도반HC 산하법인들의 효율적인 개편 필요성과 합병을 통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한 결과 자회사 일부 합병을 최종 결정했다.

도반HC 사장 주혜 스님(총무원 사업부장)은 "조계종 사업지주회사인 도반HC는 종단 수익구조 다변화를 토대로 사회공헌과 종단 목적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 확충이 기본적인 사명"이라며 "이번 합병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가장 효과적인 경영방안을 모색해 발전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圓

大韓佛教曹溪宗 第17代 · 第28代 總務院長
太空堂 月珠大宗師 宗團葬

寂

大韓佛教曹溪宗 第17代 · 第28代 總務院長을
歷任하시고, 現 元老義員이신 太空堂 月珠大宗師께서
世緣을 다 하시어 佛紀 2565(2021)年 7月 22日
(陰 6月 13日) 午前 9時 45分 全北 金堤 金山寺에서
法臘 68年, 歲壽 87歲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門徒代表 道永 合掌

■ 焚 香 所 : 母岳山 金山寺 處英文化記念館
■ 地域焚香所 : 조계사, 봉은사, 보문사, 도선사, 영화사, 진관사,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 永 訣 日 時 : 佛紀 2565(2021)年 7月 26日(陰 6月 17日) 월요일 午前 10時
■ 永 訣 式 場 : 母岳山 金山寺 處英文化記念館
■ 茶 毘 場 : 母岳山 金山寺 蓮花臺
■ 連 絡 處 : 母岳山 金山寺 (063)548-4441

※코로나19로 인하여 숙박 및 공양을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大韓佛教曹溪宗 第17代 · 第28代 總務院長 太空堂 月珠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